

# 토론문 :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 요인 및 대응 방안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권진(전임교원)<sup>1)</sup>

## [들어가며]

사회적 고립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안의 모색은 현재 낮은 감이 있을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애주기별 1인가구를 비롯하여 청년, 노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신 세 분의 연구자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부탁드리고 싶다.

사회적 고립은 절망사 개념에서 함께 다루는 하나의 영역으로써, 절망사 연구는 절망사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는 폭넓은 개념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절망사 개념과 최근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사회적 고립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방향성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절망사 배경, 진단, 시사점]

### 1. 미국 백인종의 사망률 증가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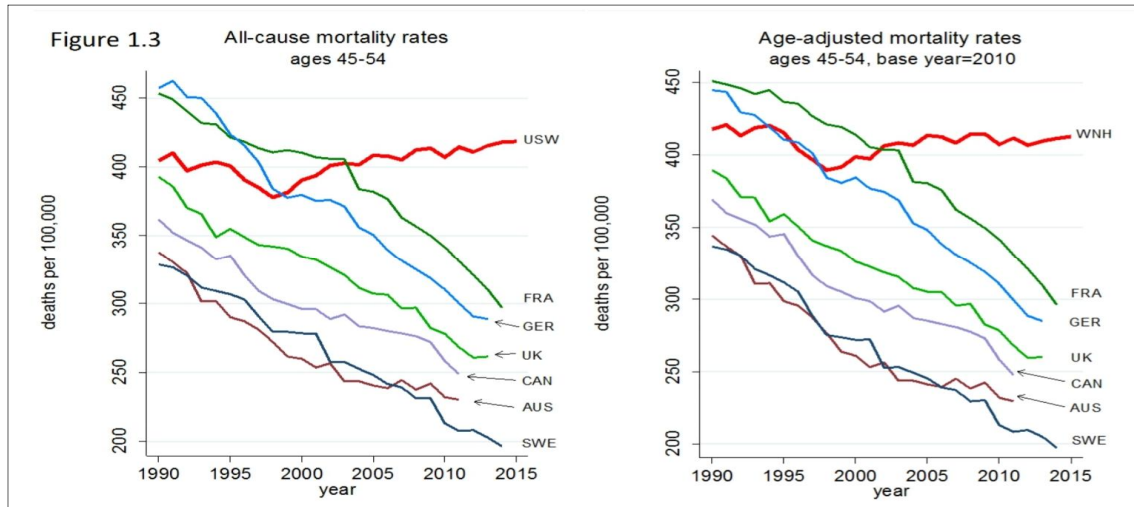
<표 1> 사망률의 연평균 변화 : 1999-2015년, 50-54세

구분		전체 원인	약물, 알콜, 자살	심장질환	암
미국	백인	0.5	5.4	-1.0	-1.1
	흑인	-2.3	0.1	-2.7	-2.4
	히스패닉	-1.5	1.0	-2.5	-1.5
영국		-2.1	1.0	-4.0	-2.3
아일랜드		-2.6	3.0	-5.1	-2.3
프랑스		-1.3	-1.2	-2.9	-1.7
독일		-1.9	-2.3	-3.5	-2.1
스웨덴		-2.1	0.8	-3.1	-2.1
일본		-2.2	-2.1	-1.4	-2.8

자료 : Case & Deaton(2017)의 table 2를 필자가 재구성

1) 본 토론자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일반공동연구 “한국의 절망사, 그 오래된 미래(연구책임 :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의 공동연구자로서, 미국에서 시작된 절망사(The Deaths of Despair) 개념과 관련된 한국적 맥락을 탐색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1] 45-54세 사망률 추이 : 미국(백인층),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앞선 표와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약물과 알콜, 자살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사망률이 백인 중년층에서 높다는 것이고,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망률은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유독 미국에서 약물 남용, 알콜성 간질환, 자살의 비율이 높았다. 해당 자료에서는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으나, 중년층의 심각성이 가장 높았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약물 남용, 알콜성 간질환, 자살의 문제가 미국 중년 백인 중에서도 저학력(고졸 이하) 계층에 편중된 현상임이 밝혀졌고, 이러한 원인으로 제조업 일자리의 상실과 같은 실업 및 사회경제적 급격한 변화의 문제가 기저에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 2. 누적적 박탈의 문제

유럽의 경우 단순히 소득 영역의 빈곤을 넘어서 다차원적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고 연구되고 있으나, 미국의 맥락에서는 사뭇 다르다. Chaskin 등(2019)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박탈의 동태적 개념인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이는 빈곤이나 불평등에 대해서 사회통합이나 연대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익숙한 유럽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임을 시사한다. 오히려 빈곤과 박탈은 ‘도시 하위계급(urban underclass)’로 개념지어진다는 것이다(wilson, 1987).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Case와 Deaton이 절망사 개념을 제시하고 누적적 박탈(Cumulative disadvantage)를 이야기한 것은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할 것이다. 본래 ‘누적적 박탈 이론’은 사회경제적인 불리함에 노출된 계층이 건강, 소득, 삶의 질 등 다차원적 빈곤에 처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빈곤의 악순환 또는 대물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유색인종이 아닌 고졸 출신의 중년 세대 백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3.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절망사 개념을 제시한 Case와 Deaton은 왜 하필 중년 백인 계층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을 실시, 결국 고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에 집중하여 절망사라는 결과를 설명한다. 여러 축으로 코호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포착된 이들 계층은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함께 굳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세대였다. 가장 혼자 떨어져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소득원과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결혼, 가정생활, 여가, 커뮤니티 활동 등을 손쉽게 누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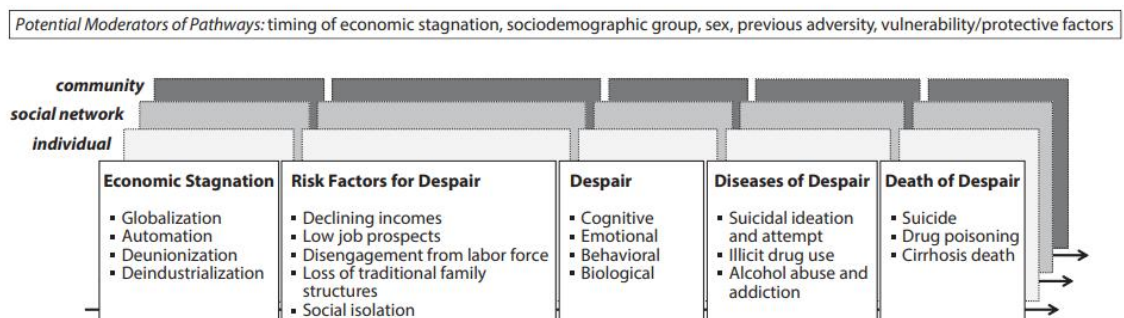
한편 시간이 흐르고 세계화, 자동화의 거대한 변화와 산업의 변화 등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전환되었고 서비스업이 대세인 가운데 이들은 ‘실업’에서 출발하여 스트레스, 자기 비하, 사회적 상호작용의 위축, 자기 고립을 겪으며 현실에서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공동체 생활까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자동화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Haan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중년 계층을 동독과 서독으로 구분하여 절망사 추세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완충해주는 사회보장시스템이 비교적 관대하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변화는 공동의 노력을 토대로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대세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맞닥뜨려야만 하는 거시적인 변화를 개인의 탓으로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개인이 가진 자유를 자기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소위 말해 ‘비밀 언덕’을 넓고 두텁게 만드느냐가 한국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 [나가며 : 사회(환경)속의 개인의 관점으로 고립 해결 방안 모색]

아래 그림은 Shanahan 등(2019)이 제시한 절망사 관련 요인들로서, 경제적 문제에서부터 개인의 절망과 죽음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다양한 동인들을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절망의 위험요인으로써 소득의 감소, 고용의 낮은 가능성, 가족의 상실과 노동조합과 같은 연대의 부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과한 알콜로 인한 질병, 약물에 대한 오남용, 자살 생각과 시도로 이어지며 이는 마치 사회적 질병과도 같아서 절망사와 같은 비극적 결론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물론, 절망사 역시 완성된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약물의 문제는 실업이나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하기에는 공급과 쾌락의 측면에서 조명되기도 한다. 알콜 역시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로 설명되기 쉽다. 자살 또한 수많은 개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절망사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고, 자살, 알콜, 약물의 문제를 따로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측정되어진 수치로 표현되는 사회적 건강성은 -그것이 절망사이거나 사회적 고립이거나- 구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응을 필요로 하며, 특히나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고립의 문제가 그 개인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서서히 고립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매커니즘을 면밀하게 파헤치려는 관점이 널리 퍼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것이다. 고립된 개인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고립되게끔 만드는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 부지런한 관심과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Case, A., and Angus, D., 2017, "Mortality and Morbidity in the 21st Centur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397-443.
- Chaskin, R. J., Lee, B., and Jaswal, S., 2019, *Social Exclus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Actors, and Impacts from Above and Below*,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Haan, P., Hammerschmid, A., and Schmieder, J., 2019, "Mortality in midlife for subgroups in Germany", *The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14, 100182.
- Shanahan, L., Hill, S. N., Gaydos, L. M., Steinhoff, A., Costello, E. J., Dodge, K. A., ... & Copeland, W. E. (2019). Does despair really kill? A roadmap for an evidence-based answer.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9(6), 854-858.
- Wilson, W. J., 1978,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